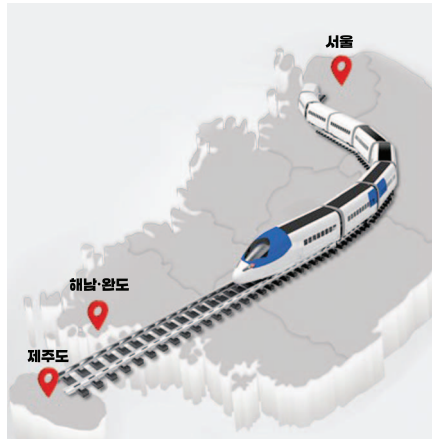


“고속철도 타고 해남·완도 거쳐 제주도 가자”



완도, 17일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토론회 해남과 공동 주관…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논의

완도군이 전남 서남권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을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하고 있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서울~해남·완도 경유 제주 고속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오

는 1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지역구 의원인 박지원 국회의원을 필두로 민홍철, 민병덕, 민형배, 허종식, 손명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완도군과 해남군이 공동 주관한다.

완도군과 해남군은 전남 서남권의 균형 발전과 관광 활성화 및 물류 이동 효율성 극대화 등을 위해 서울~제주 고속철도의 육상 구간이 해남과 완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대내외에 알리고,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촉구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하게 됐다.

서울~제주 고속철도(연장 178.8km)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7조4000억원이 투입될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지난 2007년 전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대

정부 건의문을 발표하며 논의가 시작됐지만 경제성과 수용성 부족 등을 사유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2월에는 완도군, 해남군, 영암군이 공동으로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건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고속철도가 건설되면 기상 이변으로 인한 항공·해운 결항 시 불편 해소, 이동 시간 단축, 인적·물적 자원 교류 활성화, 고용 창출, 국내의 관광 수요 증가 등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신우철 군수는 “완도가 해양치유산업을 선도하며 국내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부상함에 따라 더 많은 치유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여객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속철도가 건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속철도 사업이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무안, 자연재난 대비 대응체계 정비·점검

겨울철 제설장비 배치·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무안군은 본격적인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발생에 대비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2026년 3월 15일 까지) 동안 선제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군은 폭설·도로 결빙에 대비해 제설차량(덤프 15대, 소형 11대), 삽포기 등을 배치하고 비상근무 체계 점검을 완료했다. 또 제설 전진기지 설치·제설차(1600여) 확보, 취약 시설 점검 등 사전 대응체계를 갖췄다.

또 올여름 자연 재난의 피해를 계기로 풍수해보험과 정책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해 많은 주민이 가입을 통해 재난에 대비할 수 있게 홍보하며, 농업·축산식품부의 ‘농업인의 재해 예방 조치 소홀 시 재해복구비 미지급’ 정

책과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등을 안내해 주민의 재해예방 활동 참여를 높이고, 재해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 자금 융자 등 간접 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무안읍, 일로읍, 현경면)으로 선포된 읍·면의 피해 주민들에게는 전기료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됐다. 다만 일부 피해 주민들은 간접 지원제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군은 지난 7·8월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분석해 보완할 계획이다.

무안=이훈기 기자 leek2123@



스타 팬시...‘사랑의 연탄 나눔’ 실천 트로트 가수 박지현 팬카페 ‘엔돌핀’ (회장 김진숙)의 광우·전남 회원 50여명이 최근 목포 연산동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박지현 가수의 생일(12월 12일)을 기념해 2023년부터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팬카페 회원들은 연산동 고지대에 거주하는 2가구에 직접 연탄을 배달하고, 북항 지역 2세대에 연탄을 후원하는 등 총 2000장의 연탄과 난방용품(전기매트)을 전달했다.

서울 성수동에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 열린다

군, 12~14일 진행...“김 가치 강화·관광 자원화”

진도군은 12~14일 서울 성수동에서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를 선보인다.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는 성수동의 복합문화공간 ‘디 에이(연무장길 99)’에서 열리며, 진도 곱창김의 매력을 소개하고 젊은 소비자와의 새로운 접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행사는 ‘2024년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에 따른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의 하나로, 소비시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1020세대’를 겨냥해 직접 보고, 만지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홍보로 준비됐다.

홍보 공간은 ‘테토김, 에겐밤’을 주제로 자기관리와 건강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감성을 반영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김 바벨 돌기, 사이클 에너지 충전 등 색다른 체험 활동으로 ‘건강한 진도 김’을 강조했으며, 원조 체험 공간은 김의 질감, 결, 두께를 비교하는 공간으로 꾸민다.

또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신제품도 함께 선보여 진도 김의 위상과 가치를 높이는 홍보가 집중적

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수동 팝업스토어는 진도 곱창김의 우수한 품질을 현대적 방식으로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소비자의 반응을 살펴 앞으로도 감각적이고, 세련된 홍보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사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진도 김의 가치를 높이고, 관광 자원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 곱창김 팝업스토어’에서는 시식과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영암,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태세 강화

영암군은 최근 겨울철 폭설·한파 등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도로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자재와 장비를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점검·강화했다.

먼저 교차로·고갯길 등 위험지역 도로변에 제설함 108개를 설치하고, 긴급 제설과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모래주머니 6000개를 함께 비치해 초기 폭설 시 신속한 대응에 쓰이게 했다.

나아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1t 6대, 15t 5대의 자체 제설차량을 확보하고

있는 영암군은 전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15t 제설용 덤프 2대를 추가 지원받아 제설 능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울러 친환경 제설제 620t을 확보, 11개 읍·면에 2t씩 배정을 마쳤다.

상습 도로 결빙구간도 사전점검을 마친 군은 여운제, 돈빛제 등 15개소에 ‘상습 도로 결빙구역 감속 안전운행’ 현수막 30개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야간·한파 시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처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